

본 회

국토해양부 차관과 설비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7월 2일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 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는 지난 7월 2일 르네상스 서울 오키드룸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격 폭등에 따른 전문건설업계 지원방안과 CM제도 활성화 및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시행, 건설기능인력 직접 고용에 따른 전문건설업계 부담 가중에 따른 문제해결 방안, 건설산업 선진화에 따른 건의 등을 건의했다.

이같은 설비업계의 건의에 대해 권도엽 차관은 설비협회가 건의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석대 회장이 취임 후 “건설업계 전체의 간담회도 좋지만 업계의 실정을 잘 알기 위해서는 업계별 간담회가 낫다”는 강석대 회장의 발언을 국토부가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석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설비건설업계의 애로

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권도엽 차관님께 설비업계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는 설비업계 뿐만이 아닌, 종합과 전문 등 건설산업 전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차관님의 의지인 만큼 종합과 전문 간의 상생협력으로 건설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강석대 회장은 또 “그동안 개최되었던 건설업계 간담회는 종합건설사와 전문·설비업계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해왔습지만 종합건설사로부터 수주를 받아야 하는 우리업계가 이러한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많았기에 오늘 회의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과거 위생시설이 대부분이었던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초고층화·첨단화에 따라 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 등 고부가가치 생산시설은 전체 공사비의 70%까지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서 “최근 국제원유가 상승과 지구

본 회



▲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좌로부터 임종태 부회장, 정해돈 부회장, 박상규 국토부 건설정책관, 강석대 회장, 권도엽 국토부 차관, 김영완 경기도회 회장, 최동호 부회장, 손명선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장, 정성조 부회장, 최정호 국토부 건설산업과장)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시점에, 에너지 사용 시설을 시공하는 기계설비의 품질향상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석대 회장은 또 “이처럼 기계설비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건설산업의 증추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5개 전문업종 중 1개 업종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 크게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최근 건설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기계분야 교수는 한명도 없고 전체를 토목·건축분야의 교수진으로 구성한 것만 봐도, 기계설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너무나 소홀하지 않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산업선진화는 직접 시공을 전담하는 전문 건설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부터 시작해야지 대기업인 종합건설 위주의 정책만 항상 반복한다면 원·하도급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국제원유가 급등과 자재가격 폭등은 건설업계를 초긴장 상태로 만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철강재와 PVC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설비업계의

타격이야 말로 설명드리기조차 두려울 정도”라며 “정부에서도 건설업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15% 이상 급등한 특정자재의 E/S를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현장 적용은 요원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석대 회장은 또 “조달청에서는 예산증가를 이유로 급등자재의 실거래가 반영에 소극적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와중에 차관님께서 우리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업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차관은 “급변하는 상황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최근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강석대 회장을 중심으로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를 독려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무사히 극복해 달라”고 부탁했다.

권도엽 차관은 또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힘들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현실문제를 적나라하게 듣고 해결책을 모색함은 물론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회

제202차 운영위원회 개최



▲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7월 17일 제20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 특별시회는 지난 7월 17일 설비건설회 관 중회의실에서 제20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업무추진실적이 보고됐고, 8월 업무추진계획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다. 

□ 7월 업무추진실적

- △ 국토해양부차관 초청 조찬간담회 참석
- △ 2008년도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추진
- △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단품 E/S포함) 조정 요령 안내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개정고시 안내

△ 제21회 인정기능사 실기검정 실시

- △ 2008년 회원명부 원고자료 접수
- △ 회원사 제증명서 발급 현황
- △ 회원사 업무안내 공문시행
- △ 회원관리 업무

□ 8월 업무추진계획

- △ 제34회 총회(임시)관련 업무추진
- △ 2008년도 시공능력평가 공시 및 수첩기재
- △ 2008년도 시공능력 회원사 순위표 제작 · 배포
- △ 2008년도 제3차 시공품질 현장점검 실시
- △ 2008년도 하반기 장학생 추천의뢰 및 지급

경기도회

경기도교육청 시설담당 관계자 초청 간담회




▲ 경기도회는 지난 7월 3일 경기도교육청 시설담당 관계자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회(회장 김영완)는 지난 7월 3일 대한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 사무처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담당 관계자들을 초청해 경기도내 교육시설공사의 기계설비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영완 회장과 민광기 회원감사는 협회를 대표하여 “BTL로 인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도내 설비건설업계가 공사 수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다음 “도교육청이 발주하

는 공사 중 BTL 이외의 시설공사에 대한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를 전면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또한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설비건설업계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확대토록 노력 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고 정확한 시공을 통해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회

2008 상반기 장학금 전달



▲ 경기도회는 지난 6월 27일 산학협력체결 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경기도회(회장 김영완)는 지난 6월 27일 대한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 사무처 회의실에서 대림대학, 수원과학대학, 신흥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김영완 경기도회 회장, 민광기 회원 감사, 남윤옥 수원과학대학 건축설비소방학과 학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주석 학생을 포함한 건축설비관련학과 학생 6명에게 장학금 총 600만원을 전달했다.

김영완 경기도회 회장은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경기도회는 설비건설업계 후학 양성을 위해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마련했다”며 “향후 기계설비분야 엔지니어로서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회는 도내 3개 대학(대림대학, 수원과학대학, 신흥대학)과 지난 2001년 맺은 산학협력체결에 따라 설비건설업계 후진양성과 설비기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경기도회 2008 상반기 장학금 지급자 명단

성명	학교 및 학과	학년
이주석	대림대학 설비계열	2
정안영		
박준성	수원과학대학 건축설비소방과	3
이제상		2
이종석	신흥대학 건축설비디자인과	2
지승환		